



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·회장 박호찬) 회원들이 12일 뉴저지 허드슨 매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가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 [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]

# KOCHAM, 박호찬 회장 연임 및 사업계획 승인

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통과 요청 지원

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애로사항 취합, 개선활동

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는 12일 뉴저지 허드슨매너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, 박호찬 회장(삼성물산 미주총괄)의 연임 및 사업계획을 승인했다. 새해 사업계획으로는 미국 내 타지역 한국지상사협회간의 협력을 유지하고, 동포기관과의 도서 기

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. 통상활동 부분에서는 지난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(E-4) 법안제정 요청서한을 연방 상하원의원 63명에게 발송한 데 이어, 올해에도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. 또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

업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.

커뮤니티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월 경제 및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, 타 지상사협회 및 동포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며, 동포학생들을 회원사에 배치시키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6월 3일부터 10주간 실시하기로 했다.

김은별 기자

kim.eb@koreadailyny.com